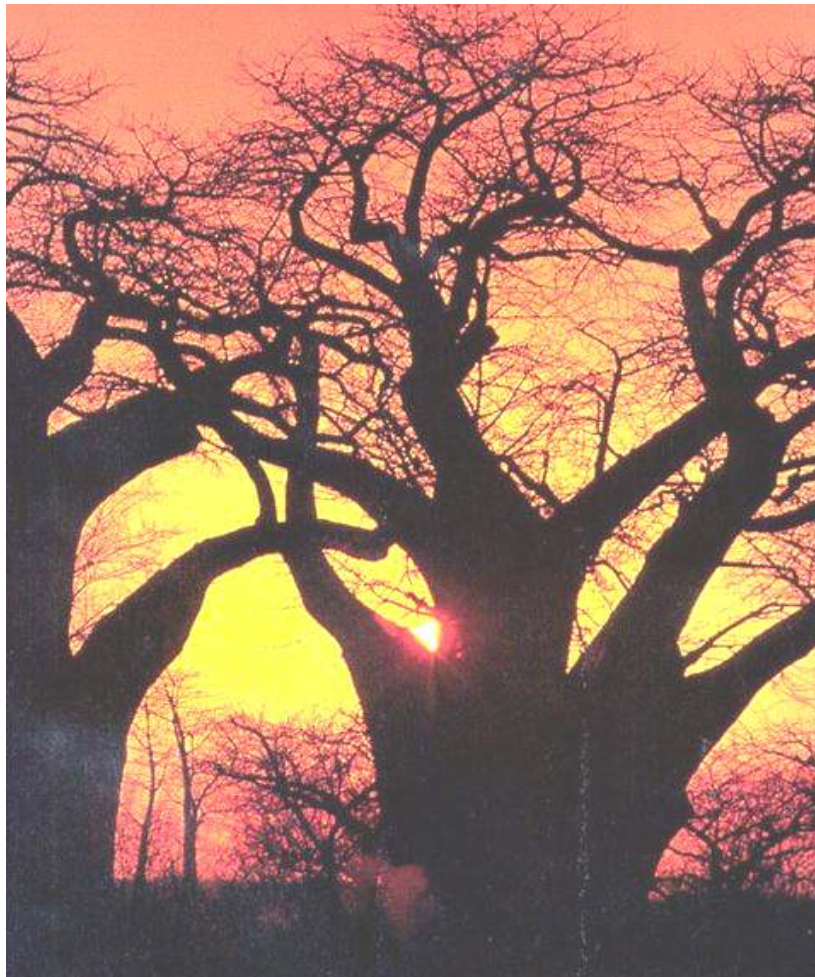


아프리카 맛보기
(세네갈)

- 목 차 -

1. 서부아프리카의 관문 세네갈에 관한 기본상식	39
2. 서부아프리카에서 가장 시원한 그곳, 세네갈	41
3. 세네갈의 사회와 문화	42
4. 시인이자 철학자인 「생고르」 초대 대통령(1960-81)	45
5. 과거 노예수출의 집합소, 고레섬(Island of Gorée)	47
6. “지옥의 랠리”, 「다카르 자동차경주 대회」	49
7. Jazz와 세네갈 음악	53
8. 한국, 「테랑가의 사자」 세네갈을 만나다	56

서부아프리카 불어권의 맹주 세네갈



세네갈의 상징! 바오밥 나무

1. 서부아프리카의 관문 세네갈에 관한 기본상식

서부아프리카의 관문인 세네갈은 한반도 정도의 면적에 인구 약 1,166만명(2005), 1인당 국민소득 \$686에 불과한 최빈 개도국중의 하나이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비동맹 중립, 친불, 친서방 외교노선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안정적인 국내정세와 04-05년간 약 6%대의 경제성장의 달성으로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 중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네갈은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향후 UN개혁 관련하여 아프리카에 배정될 2개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정치적으로는 지난 81년 아프리카 국가중 최초로 다당제를 도입하였고, 군인과 경찰의 정치개입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으며 2000년 대선에서 독립이후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룸으로써 아프리카 민주화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04년 기준 GDP가 약 72억불, 수출 15.3억불, 수입 22.2억불 등으로 아직 미미한 존재이다.

주요 수출품은 어류 및 수산가공품, 인산염, 땅콩 등 농산물이며, 가전제품, 자동차, 플라스틱류 등 생필 공산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도국형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다.

서부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침략은 세네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세네갈의 전통적 농산물은 땅콩과 깊은 인연이 있다. 1870년대 이후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철도를 건설한 곳은 알제리이지만, 프랑스가 서부아프리카에 건설한 세네갈 「다카르」 - 「니제르」 철도는 세네갈의 황금이라고 불리던 땅콩의 생산지에 부설된 철도여서 일명 이 철도를 「땅콩철도」라고 불렀다.

땅콩이 세네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는 다음의 사건에서 짐작할 수 있다. 지난 84년 낮은 공식수매가에 불만을 품은 농부들이 공식수출량의 3배에 달하는 70만톤의 땅콩을 이웃나라로 밀반출함으로써 81년에 취임한 디우프 대통령의 정권기반이 흔들리기도 하였다. 땅콩 재배는 경작 가능한 토지의 40%를 차지하며 1백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지만 땅콩의 국내소비량은 연간 전체수확량인 60만톤의 1/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1] 땅콩을 나르고 있는 세네갈의 농부들

땅콩 재배는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되나 땅의 양분을 모두 빨아들여 땅콩을 재배한 토양은 비·바람에 의해 쉽게 풍화·침식되어 환경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0년 취임한 「와드」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 공사 등 다수의 개발 프로젝트 및 해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제반 여건의 미비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2. 서부아프리카에서 가장 시원한 그곳, 세네갈

「세네갈」은 아프리카 대륙의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세네갈 강을 건너 「모리타니아」와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말리」, 남쪽으로는 「기네」 및 「기네비소」와 접하고 있다. 세네갈 남서지역으로 전체가 둘러싸인 독립국가인 「감비아」는 북부 세네갈과 남부 세네갈인 카자망스(Casamance)를 분리하고 있다.

세네갈에는 3개의 강이 흐른다. 모리나티아와 국경을 형성하는 북쪽의 세네갈강, 극동쪽의 발원지만 제외하고는 감비아에 둘러싸인 중앙의 감비아강, 인근지역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지역명칭의 유래가 되기도 했던 남쪽의 카자망스강 등이다.

세네갈의 기후는 쾌적한 열대성 기후로 다카르는 서부아프리카에서 가장 시원하고 서늘한 지역이다. 11월에서 6월까지의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7월부터 10월까지의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는데 1월부터 2, 3개월 동안 사하라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대규모 먼지바람인 ‘하마탄’ 때문에 호흡기에 피해를 준다.

가장 더운 달은 9-10월로 기온이 섭씨 30-35도이며, 가장 추운 달은 1월로 섭씨 18-26도이다. 또한 가장 건조한 달은 4-5월로서 평균 강우량이 1mm이고, 가장 습한 달은 8월로 평균 강우량이 254mm이다.

3. 세네갈의 사회와 문화

세네갈의 문맹율이 60%에 달하는 가운데, 초등교육 등록율(85.1%)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95%)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세네갈은 서부아프리카의 지적, 문화적 중심지로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다카르 대학은(04년 기준 약 4만명 등록) 불어권 아프리카 학생들이 선망하는 대학이 되고 있다. 개설 학과는 문학, 법경제학, 과학, 의학, 언론, 공학, 사서학, 교육학 등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처럼, 세네갈의 주요 토착민인 월로프족(Wolof)은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로 출생에 의해 신분이 결정된다. 사회 최고위층은 전통적 귀족과 무사계이며 그 다음이 농민, 상인이고, 대장장이, 가죽가공업자, 목공기술자, 직물공, 「그리오」(griots) 등은 카스트 계급으로 내려간다.

「그리오」는 카스트중 최하층이지만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구전되는 전통을 이어가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대개 한 집안이나 마을의 역사를 암송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보면 인구의 90% 이상이 회교도로서 회교도 공동체(brotherhood)정신이 사회 깊숙이 뿌리박혀 있으며, 이들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매러부」(marabout)들이 회교도들의 사회경제생활을 인도하고 있다.

정통 이슬람과 세네갈의 그것을 구분짓는 큰 특징은, 바로 「매러부」 숭배이다. 세네갈에서는 알라와 성도들을 연결시켜 준다고 여겨지는 그랜드칼리프(Grand Caliphs) 또는 「매러부」를 극진히 숭배한다.

세네갈은 쾌적한 기후때문에 유럽의 주요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2003년 기준으로 약 50만명의 관광객이 주로 유럽 등지에서 방문하였다. 대서양 해변을 따라 외국인을 위한 관광 리조트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유럽이 겨울철인 12-2월중 따뜻한 기후를 즐기고 월동을 위하여 세네갈에 도래하는 철새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도 한다.

세네갈 관광자원의 잠재력은, UNESCO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을 4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15-19C 서부아프리카의 노예무역중심지인 「고레섬」을 비롯 세네갈 삼각지에 위치한 「주드 조류 보호지」, 사바나와 삼림의 보고로서 350종의 조류와 80종의 포유류 등이 서식하는 「니오콜로-코바국립공원」, 과거 서부아프리카의 수도이자 식민도시의 표본으로서 가치가 있는 「생루이(St.Louis)」 등이다.



[그림 2] 고레섬



[그림 3] 주드 조류 보호지

세네갈 음식은 전반적으로 훌륭하다. 지방 특식으로는 뿔레(poulet) 또는 뼈아송 야사(poisson yassa)가 유명하며, 양면을 구운 닭고기나 생선요리에 땅콩을 넣은 스튜인 마페(mafé), 야채소스와 생선과 함께 익힌 쌀요리인 체이보우젠(ti boulienne)등이 있다.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인 「생고르」 (Senghor)는 독립직후부터 서부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세네갈 전통예술에 대하여 육성정책을 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Sorano 국립극장 및 국립 전통무용단을 창설하였다. 비록 경제사정 악화로 예술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는 추세이나, 초기의 적극적 육성 정책으로 미술, 조각, 섬유 분야에 서 재능있는 예술인들을 많이 발굴하였다.

음악 분야에서는 서부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현대 음악과 접목 시켜 98년 프랑스 월드컵 개막전에서 노래를 한 바 있는 「유쭈 운두르」 (Youssou N'dour)를 비롯하여 「바바 말」 (Baaba Maal), 「이스마엘 로」 (Ismaël Lô) 등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세네갈은 60, 70년대 영화산업으로도 널리 인정받았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예산 축소 등으로 쇠퇴하고 있으나, 일부 영화제작자들이 프랑스, 독일로부터 지원을 받고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영화관은 프랑스에서 제작된 영화를 주로 상영하나, 미국, 이태리, 인도 등지에서 제작된 영화도 일부 상영되곤 한다.

4. 시인이자 철학자인 「생고르」 초대 대통령(1960-81)

「레오폴드 세다르 생고르」는 1906년, 다카르 남쪽 작은 어촌에서 귀족 출신의 부유한 상인인 아버지와 유목민인 페울 종족에 속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세네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장학금을 받아 스물두 살 때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훗날 프랑스 총리(1962-1968)를 거쳐 대통령(1969-1974)이 되는 「조르주 폼피두」는, 젊을 때 그의 대학 친구 중 하나다.

1932년에 생고르는 프랑스 국적을 얻고 1935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프랑스군에 입대한 그는 전쟁 중에 포로로 붙잡혀 18개월 동안 독일 포로수용소에서 지냈다. 여기서 독일어를 배우고 시를 쓰기 시작한 그는 석방된 다음 아프리카 언어 교수직을 얻었다.



[그림 4] 생고르 대통령

1945년에서 1958년 사이에 생고르는 프랑스 국회에서 세네갈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1947년에 그는 세네갈에 ‘민주 세네갈 블록당’을 설립하였는데, 처음으로 다양한 민족과 가난한 주민 대표가 여기 모였다. 그 밖에도 그는 새로운 아프리카의 자의식 이념을 주장하는 ‘아프리카 문화 전통주의’ 소속 작가 겸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작품들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는 앙드레 지드, 알베르 카뮈, 장 폴 사르트르 등 당대의 대표적인 프랑스 문인들과 함께 활동하였다. 생고르는 1958년 사회주의자와 연합하여 '세네갈 국민 연합' 정당을 이루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59년 형성된 세네갈-말리연방에서 1960년 4월4일에 말리가 탈퇴하고 마침내 1960년 8월에 세네갈은 독립을 선포하게 된다. 60.9월 독립직후, 세네갈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레오폴드 생고르」는 1980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그의 뒤를 이어 「아브드 디우프」가 다음 20년 동안 관용(톨레랑스)과 민주주의 정책을 계속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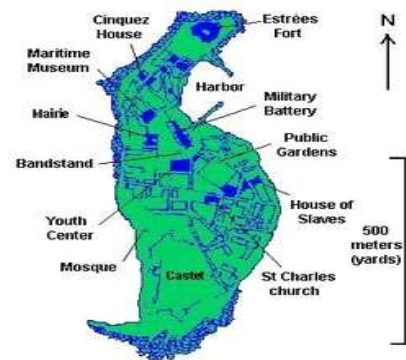
세네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물론 여기에도 다양한 종족과 종교집단들이 있지만,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300킬로미터 내륙으로 자리 잡은 감비아와 한 번도 갈등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1982년 이후로 두 나라에 경제적 이익이 되면서도 각자의 독자성을 확보해주는 연방을 이루었다. 카톨릭신도인 생고르는 처음부터 주민의 90퍼센트에 달하는 이슬람신도에 대해 상호 존중 정책을 펼쳤다. 그는 다양한 종교를 지닌 타민족 출신 장관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쌓음으로써 협동의 예를 보여주었다.

생고르는 1968년에 독일 서적상인 협회가 주는 평화상을 받았다. 그리고 1983년에는 아프리카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으로 뽑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아프리카 문화 전통주의와 아프리카 사회주의 이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아프리카인이 다른 대륙의 문화와 대화를 하는 한편, 독자적인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기본 이념이 아프리카에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 여겼다. 언젠가 그가 말한 것처럼 '옛날부터 나눔의 이념이 아프리카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레오폴드 생고르는 프랑스 여성과 재혼하였고, 2001년에 95세의 나이로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5. 과거 노예수출의 집합소, 고레섬(Island of Gorée)

「고레섬」은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서쪽으로 3km 떨어진, 길이 900m, 너비 300m의 작은 섬이다. 15-19C까지 아프리카 연안의 가장 큰 노예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서아프리카 근대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이다. 다카르에서 불과 30분밖에 안 걸리지만, 섬 주변을 흐르는 빠른 조류 때문에 노예들의 탈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림 5] 고레섬

「고레섬」은 그동안 여러 차례 영유권이 바뀌면서도 16세기부터 약 300년간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으나, 1815년 노예무역이 폐지되자 점차 쇠퇴하였다. 섬 곳곳에는 노예 감금시설, 요새 유적 등이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 1980년대에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18세기에 지은 ‘노예의 집’은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건물에 창문이 없고 벽에는 녹슨 쇠사슬이 걸려 있어 참혹했던 당시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은 약 100여명의 주민만 남아있으며, 아스팔트도 자동차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는 있지만, 수많은 카페와 화랑,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가로 인해 다카르 주민들의 아늑한 주말 휴양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섬의 오랜 역사를 지켜온 낡은 건물, 특히, 어두운 노예막사와 화려한 노예 무역상들의 저택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부젠빌리아꽃이 피어있는 산책로는 지중해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세네갈 정부는 통한의 과거사를 보존하기 위해 1975년에 섬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1978년 유네스코(UNESCO)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오늘날에는 화해의 장소이자, 인간착취의 표본을 상기하는 상징적 기능을 하고 있다.

2005년 4월, 세네갈을 방문했던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고레섬의 '노예의 집'을 방문한 뒤, 과거의 노예 수입에 대해 사과했다. 브라질은 당시 가장 큰 노예 수입국이었으며 1888년에 와서야 노예 제도를 폐지했다. 이 때문에 현재 1억8000만 브라질 인구의 46%가 아프리카 후손들이며, 전 세계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흑인의 인구가 많다.

지난 98년 「클린턴」 미대통령, 03년 「부시」 미대통령도 세네갈 방문시 이곳을 방문, 과거 노예제도를 죄악이라고 언급하였다.

섬 북쪽의 IFAN 역사 박물관(IFAN Historical Museum)은 가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멋진 그림과 여러 전시물들이 세네갈의 역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여성 박물관(Musée de la Femme)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네갈 여성들의 인생 여정과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노예의 집



[그림 7] 바다로 향한 포신

Le Castel은 바위투성이의 고원으로, 이곳에서 고레섬과 다카르의 풍경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이 섬 전체의 약 1/5이 여러 세기에 걸쳐 지어진 방어요새로 덮여있으며, 서북단의 현무암 돌출바위 쪽에 위치한 시멘트 포대와 바다로 향한 녹슨 대형 포신들이 굴곡많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섬의 북쪽에는 영화 ‘빠빠용’에서 주인공이 탈옥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던 절벽도 있다.

6. “지옥의 랠리”, 「다카르 자동차경주 대회」

세네갈 「다카르」 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매년 「지옥의 랠리」라고 불리우는 「파리-다카르 자동차 경주」 대회이다.

제28회 다카르 랠리는 2005년 12월 31일부터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시작, 총 9,043km의 대장정을 거쳐 2006년 1월 15일,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도착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중해안을 따라 스페인 구간을 달린 뒤 알메리아에 도착하면, 두 대의 대형 페리가 차와 사람을 몽땅 싣고 밤새 지중해를 건너 모로코의 나도르항으로 향한다.



[그림 8] 다카르 랠리 모터사이클 부문에 참가한 선수들

이 대회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큰 위험 요소도 지니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

는 사하라 사막을 하루 평균 850km씩 16일을 달려야 하는 최악의 운전 조건 때문이다. 그 해의 상황에 따라 출발지와 목적지가 바뀌면서 공식명칭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험난한 코스의 악명만큼은 변치 않았다.

공식 완주율이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난 27년간 45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기에 ‘지옥의 랠리’, 혹은 ‘죽음의 랠리’라고도 불린다. 대회의 창시자 ‘사비느’ 역시 86년 코스 답사 도중 헬기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다카르 자동차 경주대회 창시자인 프랑스의 모험가 티에리 ‘사비느’ (Thierry Sabine)는 70년 중반 모터사이클로 사하라 사막 횡단에 나섰고, 말리 근처에서 길을 잃었다. 구조비행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사비느는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극한체험에 폭 빠져 사막을 횡단하는 자동차 경주를 꿈꾸게 되었다.

드디어 1978년 12월 26일,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알제리, 니제르, 말리를 거쳐 79년 1월 14일에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도착하는 제1회 랠리가 펼쳐졌다.

그러나 이 대회가 거듭되면서 매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이 대회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특히 10회 대회에서는 운전자 3명, 기자 2명, 민간인 2명 등 총 7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중상을 입었다. 이를 계기로 11회 대회부터 코스길이와 대회 일정이 짧아졌으며, 하루에 달릴 수 있는 구간도 800km 이상을 넘지 못하게 제한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을 지날 때는 시속 40km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국제랠리선수권 선수자격증이 있어야 출전 기회를 주게 되었다.

다카르 랠리 경주 출발은 전날의 경쟁구간 성적 순위에 따라 모터사이클, 자동차, 트럭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엔진부터 차체까지 완전 개조가 가능한 T3 부문이 가장 인기가 있다.

코스는 스피드와 시간을 다투는 '경쟁구간(Special Stage)' 그리고 다음 경쟁구간으로 이동하는 '연결구간(Liaison Stage)'으로 구분된다. 연결구간은 정해진 시간에 통과만 하면 되고, 팀의 지원차로부터 정비도 받을 수 있다. 경쟁구간은 미리 결정된 최소 시간 안에 들어야 하는 구간으로 초까지 계산된다. 허가된 최대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고, 늦거나 반칙을 할 경우 실격되어 공식 순위에서 제외된다.

1위보다 70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실격 처리되며, 경쟁구간을 통과한 시간을 모두 더해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우승하게 된다. 코스는 비밀이므로 전날 받은 로드북에 의존해야 하고 GPS 기능 또한 제한된다.

운전자들의 선두경쟁 못지않게 각 팀 지원 스태프들의 야영지 자리잡기 경쟁 또한 치열하다. 빨리 도착한 팀은 한적한 곳에서 넓게 텐트를 치고 경주차를 수리할 수 있으나, 늦게 도착한 팀은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불편하게 밤을 지새워야 한다. 다카르 랠리는 경주차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경기이므로, 단 하루만 달리고 나도 볼트가 풀어져 밤새 다시 조여야 하는 것이다.

이 대회에서 한국과의 인연도 우리의 자동차 성능향상과 함께 해가 거듭 될수록 깊어지고 있다.

87년 : 파리에 거주 중이던 최종임씨가 순위 결정과는 무관한 프레스카를 타고 한국인 최초로 경기에 참여

88년 : 기아 록스타 완전개조차 1대가 출전, 중도탈락

93년 : 기아 스포티지 완전개조차 2대 출전, 중도탈락

94년 : 쌍용 코란도 웨미리 완전개조차 2대, 이 중 1대가 종합 8위 차지

95년 : 무쏘 완전개조차 3대가 참가, 각각 8위와 34위

96년 : 무쏘 완전개조차 6대가 출전, 석 대가 완주하여 8위, 24위, 66위 차지, 김한봉 선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완주

2000 : 기아 스포티지가 2대 출전, 5위 및 6위

한편, 최고 역대 우승팀은 83년부터 빠짐없이 출전해 9차례 우승한 미쓰비시이다. 이 외에도 폭스바겐과 닛산, 푸조가 명성을 얻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와 일본 자동차가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자존심 강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프랑스가 주최하는 대회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적 대회로서의 면모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7. Jazz와 세네갈 음악

"Jazz"란 단어는 언제부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서양 예술 음악사의 현대음악편에 클래식 음악과 나란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재즈의 실체에 대하여, 즉 기원, 역사, 음악적 특징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흔하지 않다.



[그림 9] 선적에 실린
노예들의 모습

재즈는 노예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노예신분이었던 흑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음악이다. 17세기부터 성행한 노예무역은 주로 서부 아프리카 지역인 세네갈, 기네 해안, 니제르강 유역, 그리고 콩고 등지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노예 상인들은 아프리카 부락을 덮쳐 주민의 거의 1/3이상을 포로로 잡아 노예선에 싣고, 몇 달 동안의 항해를 거쳐 미국에 도착한 뒤 노예 시장에서 백인에게 팔았다. 노예선 안에서의 참상은 이루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며, 그 당시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노예를 실었던 선실의 폭은 120~150cm, 높이는 60~90cm 정도로 비좁았다고 한다. 이 협소한 공간에 흑인 노예의 오른손과 왼쪽 발을 같이 묶어 줄을 지어 뻗뻗히 앉히고, 철봉을 그 사이에 쭉 질러 꽂아 놓았다고 한다.

흑인들은 바로 눕지도, 바로 앉을 수도 없는 자세로 몇 달 동안 항해하는데, 너무나 비위생적인 처리로 인하여 혼절했다 깨어났다 하는 상태에서 죽는 이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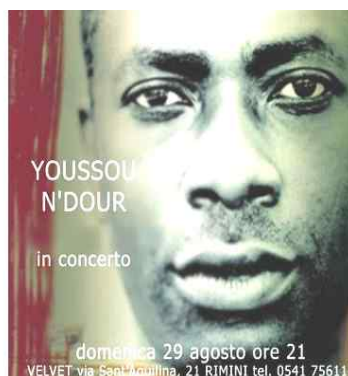
재즈는 위와 같은 역경에 처했던 아프리카계 흑인에게서 비롯된 음악이므로 아프리카의 음악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는 그들 특유의 정조와 가치관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수백년간 백인 사회 안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백인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으리라는 것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즉 재즈는 흑인적인 요소와 백인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태어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라고 하겠다.

음악적인 형태는 대개 단순한 가창곡으로, 흑인 영가 (Negro Spiritual과 Gospelsong), 블루스 (Blues), 그리고 노동요(Worksong)를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음악형식과 감정 표현이 내포되어 있어, 좋은 곡들은 후에 재즈 음악가들에 의해서 다시 불리워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인들은 일을 할 때 반드시 노래를 부르는 관습이 있다. 노래의 리듬에 맞추어 일을 함으로써 능률을 올리기도 하고, 노래 가사에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이런 전통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로 이어져서 도로를 닦을 때, 철로를 놓을 때, 노를 저을 때, 나무를 벨 때 노동요를 부르는 관습을 낳았다. 노래 형식은 선창자가 노래하면 합창으로 대답하는 형식이다.

이렇듯 재즈의 기원은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흑인들에게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고, 특히 서아프리카의 문화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세네갈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대 세네갈의 제2의 도시 St.Louis 출신의 밴드들이 파리와 유럽에서 활동하여 큰 인기를 끌었고, 현재에도 국제 재즈 축제가 매년 5월에 이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세네갈 음악은 전통음악과 현대 음악이라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 나눌 수 있다. 현재의 팝스타들은 음악의 기초를 전통 사운드와 리듬에 두고 있으며 점차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속으로 합류하고 있다.



[그림 10] 유쭈 운두르

세네갈 현대 음악의 아버지는 이브라 카쎄(Ibra Kass)로, 1960년대 초에 「스타 밴드 드 다카르(Star Band de Dakar)」를 결성했다. 현재 스타들 중 선두주자는 유쭈 운두르(Youssou N'dour)로

전통 음악과 서양 팝, 록, 소울을 결합하였으며, 국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뚜레 쿤다(Tourè Kunda)는 또 다른 세계적인 연주자이며, 북부세네갈 출신 플족인 바바 말(Baaba Maal)은 자기 종족의 언어로 노래하며 훨씬 '아프리카'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

8. 한국, 「테랑가의 사자」 세네갈을 만나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제반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세네갈은 기존의 프랑스 등 서구 일변도의 외교관계에서 탈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관심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림 11] 생고르 대통령 방한 기념우표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세네갈 방문 및 「생고르」(Senghor) 세네갈 초대 대통령(79년)과 「디우프」(Diouf) 2대 대통령의 방한(84년) 등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양국간 교역은(2005년 기준) 수출 14백만불, 수입 3백만불로서 매우 영세하며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섬유제품, 수입은 냉동수산물이다. 또한 2005년 기준 순 투자는 총 3건에 453천불로서 가발제조업체(미성상사, 나오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국과 세네갈간의 최근 인연은 지난 2002. 6월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이다. 세네갈은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전에서 98년 우승국이며 과거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세네갈의 축구팀은 「테랑가의 사자」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데, 「Teranga」는 용맹과 관용을 의미하는 세네갈 고유어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세네갈 선수가 400M 남자 허들 경기에서 획득한 은메달은 세네갈의 유일한 올림픽 메달이기도 하여, 한국과 세네갈의 스포츠 분야에서의 깊은 인연을 알 수 있다.

세네갈은 지리적으로나 제반 요건에 있어서 서부아프리카의 관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주변 4강 중심 외교에서 탈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으로 외교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농수산·관광분야에서의 성장잠재력이 큰 세네갈은 우리의 서부아프리카 진출에 있어서 간과하여서는 안 될 관문으로서,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난 73년 다카르에 상주공관을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공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네갈은 현재까지 주한 상주공관을 설치하지 않고 주일본 대사관이 한국을 겸임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지난 72년 개설하였던 상주공관을 경제 사정으로 지난 98년 폐쇄하고 현재 주 기니 북한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다.

